

COMMUNITY PROJECTS BY ARTISTS

원정

인천 배다리·우각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

마석 이야기

동두천 프로젝트

리포트

기획자의 말

석수

석수시장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방송곡도 있고...

뜨거웠던 2007년 여름, 안양 석수동 재래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하나씩 비어가던 재래시장 점포에 열 명의 예술가들이 입주한 것이다. 어떤 이는 점포를 개조해 수영장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반경 500m 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석수시장 전용' 라디오 방송곡을 개설했다. 이 예술적 난장을 벌인 것은 바로 안양의 예술 단체 '스톤앤워터'. 도대체 3개월 동안 그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

글 권자연 화가·전시 기획자

석수시장은 안양의 중앙시장에 몰려 있는 지역 주민들을 안양의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생겨난 ‘계획된 재래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은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았고 석수시장은 처음부터 실패한, 반만 존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대개 그러하듯, 자본주의하에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생겨나는 대형마트들에 밀려 ‘과연 2~3년 후에도 이곳이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될 정도로 석수시장의 상황은 위태로워 보인다. 그런데 인적도 드문 이 동네에 5년 전 스톤앤워터라는 예술문화 단체가 들어왔다.

스톤앤워터(Stone & Water, 관장 박찬웅)는 안양 석수동 재래시장 안에서 생활 속의 문화예술, 지역미술 운동, 공공미술, 문화예술 운동을 벌이는 예술단체다. 지난 5년 동안 스톤앤워터는 안양에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 행위들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주 더디고 힘들었지만 이 지역의 어린이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를 분명 바꾸고 있다. 특히 이번 <석수시장 프로젝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작가와 상인들의 관계를 통해 나는 이러한 지속적 예술 행위가 한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에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톤앤워터의 세번째 석수시장 프



대형마트에는 없고 석수시장에서만 파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술’. 지난 5년 동안 스톤앤워터가 석수시장에서 벌여온 예술 행위들, 문화 교육은 아주 더디게나마 이 지역 사람들의 눈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로젝트이자 국제작가포럼(Artist International Forum)의 2007년도 프로젝트 II인 이 <석수시장 프로젝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외 레지던시 웹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공공미술의 형태로 작업해온 작가들을 공모한 후, 심사를 통해 각 지역과 나라에서 온 최종 여덟 명의 작가와 두 명으로 이뤄진 그룹 한 팀을 선정

했다. 선정된 열 명의 작가들은 2007년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수시장의 비어 있는 상가 9곳을 작업실로 제공되고 숙소와 소액의 작업비가 지원됐다.

**공동체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운동,
세 번의 세미나**

6월 21일과 22일 참여작가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한 <석수시장 프로젝트>는 6월 29일 ‘미시 공동체의 자생성’이라는 주제 아래 첫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경기도 화성과 안산이라는 아주 다른 두 지역에서 생겨난 공동체 두 곳을 초대하였다. 경기도 화성의 ‘창문아트센터’(박석운 관장 발표)는 지역을 살리는 큰 힘을 지닌 작가-농민 공동체이고,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류성환 목사 발표)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로 유입된 많은 외국 인력들이 형성해낸 다문화 공동체이다. 두 곳 모두 지역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월 6일에는 ‘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발표-안양’(박찬웅 스톤앤위터 관장 발표)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안양에서 이뤄졌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공미술 사례 발표를 들어보는 세미나를 열었다. 스톤앤위터가 진행해온 <안양천 프로젝트>와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PAP)를 중



심으로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 작가들을 비롯한 초대된 외부인들은 안양천의 역사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실제 프로젝트 현장을 답사하고 안양천의 발원지가 있는 관악산을 등산했다. 안양이 내려다보이는 불성사에서 절밥을 먹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푹푹한 산길을 더듬거리며 같이 내려오는 등 안양의 흙과 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세미나였다.

7월 13일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지역미술-예술의 확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Toride Art Project, 강우영 동경예술대학 박사과정 발표)와 ‘할아텍’(서용선 서울대 교수 발표)을 초대하였다.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는 시민과 토리데 시(市), 동경예술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아트 프로젝트로서 동경예술대학 토

작가들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다른 예술가들을 세미나에 초청하여 그들의 예술작업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작업의 방향을 가다듬어갔다.



리데 캠퍼스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축이 되어 진행해오고 있는 미술 행사이다. 시민-대학(작가)-시의 삼원소가 진행 초기단계부터 탄탄하게 연계되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견제하고 컨트롤하며 충분한 계획 아래 행사를 이뤄내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는 단체였다. 강원도 철원의 '할아텍'은 외부에서 작가들이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미술 혹은 공공미술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며 최근에는 수년간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결실을 맺어 그곳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듯하였다.

스톤앤워터는 초기 단계에 작가들과 함께 이러한 세미나들을 진행함으로써 세미나에서 언급된 이슈나 지점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하게 했다. 이를 통해 크게는 석수시장이라는 지역 연결고리 아래 형성해나갈 공동체에 대해

오프닝 날 전시장에 모여든 사람들. (오른쪽) 채진숙 작가가 마련한 떡집 앞 갤러리.



서, 작가는 작가 개개인이 진행할 작업 방향들에게 대해서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예술가와 상인의 수상한 동거가 시작되다

작가들이 지역에 들어가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고 상인들의 주변을 맴돌며 도움을 청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상인들 역시 작가의 작업을 알려고 노력하고 작업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등 작업 제작을 도와주는 일들을 기꺼이 즐기고 있었다. 작업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3개월간 빌리는 것도 상가 주인들의 특별한 동의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시우(한국 서울) 작가가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하며 만든 석수시장 상인들의 노래가 담긴 CD, 패트릭 잠봉(독일 베를린) 작가가 상가 일부를 개조하



여 만든 수영장, 조은지(한국 고양) 작가가 주변의 나이 많은 상인들과 부딪혔던 여성흡연 문제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와 드로잉, 니콜라스 스프랏과 로렌 윈스톤(뉴질랜드 오클랜드) 아티스트 그룹이 석수시장 주변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제작한 장판을 소재로 한 가구 프로젝트, 채진숙(한국 인천) 작가가 작업실 입주 후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준 떡

(위) 이재현 작가가 그린 석수시장 주변의 풀들은 재래시장의 사라짐을 표현하는 듯하다.

(아래) 권승찬 작가는 오직 석수시장 주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개설했다. 이를 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라디오'.

돌리기 희망 퍼포먼스, 타마라 구베르나트(미국 뉴욕)과 김선애(한국 안양) 작가가 상인들이나 안양에 오래 산 주민들을 인터뷰한 석수 인터뷰 프로젝트, 이재현(한국 대구) 작가가 마치 재래시장의 사라짐을 표현하듯 석수시장 주변의 풀들을 그려낸 페인팅들, 오픈 스튜디오 기간 내내 석수시장 곳곳에 방송된 권승찬(한국 광주) 작가의 '주민이 주체가 되는 라디오' 방송 등 석달이라는 기간 동안 작가들은 작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이 지역을 녹여내려고 노력했다.

오프닝 날 차려진 테이블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예술을 지원하는 아주 간단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김밥 가게에서 내놓은 김밥들, 비빔밥 식당에서 제공해 준 마른안주, 떡집에서 준 팥팥 열린 음료수와 얼음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통, 지역 검도부가 보내준 떡, 개인 기부자가 보낸 맥주 등... 모두가 작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끼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씩 보내준 것이다. 바로 이런 작은 모습이 예술과 주민이 만나고 소통하였다는 작은 증거가 아닐까.

또한 <석수시장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정말 너무나 적은 예산이어서 지역 기업들과 개인 기부자들이 필요했다. 기부금은 레지던시 진행 과정 내내 있을 많은 것들을



패트릭 잠봉 작가가 점포를 개조해서 만든 수영장은 단연 가장 눈길을 끌었다. 작가가 몸에 감고 있는 수영기구도 버려진 가구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가능하게 하는 변수였다. 그런데 넘치진 않았지만 정말 적당한 양의 기부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25만 원을 지원해준 개인부터 200만 원을 지원해준 기업까지 다양한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예술, 사라진 공동체를 재생하다

스톤앤워터에서 내거는 <석수시장 프로젝트>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자유

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사라져가는 재래 시장과 지역 경제공동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것.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미시공동체의 자생성, 공동체성을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마을을 만드는 것. 경제공동체 운동을 촉발시키는 것.

또한 스톤앤워터가 이 프로젝트에 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바로 ‘공공



이재현 작가의 점포는
그림이 가득 걸린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미술'의 새로운 개념이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은 대개 게릴라처럼 한 지역에 들어와 순식간에 작업을 '만들어내고' 곧 사라진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나 소통 없이 물리적인 형태의 무엇인가를 남기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공공미술에 대한 대안으로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작가들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 지역에 충분히 머물며 지역 주민들과 부딪히고 나누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가들 삶의 한 부분으로 지역의 공공성이 천천히 흡수되고 난 다음 각 개인이 진행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공공'미술이 아닐까.

일전에 뉴욕에서 진행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디렉터가 아닌 작가로 참여한 적이 있다. 차샤마 재단(Chashama Foundation)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맨해튼에서 일정기간 동안 쓰지 않는 사무실이나 상가, 빌딩 한 층을 건물주들로부터 기증받아 차샤마 재단이 공모를 통해 미리 확보한 미술 작가들, 공연 연출가들, 무용가들 등 예술인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레지던시였다. 비어 있는 공간을 놀리지 않고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제공한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예술과 자본이 만나는 경우다. 처음 내가 스톤앤위터의 제안을 듣고 말아보겠다고 했던 이

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경험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이번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가능성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레지던시를 진행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예술과 주민들을 '소통'이라는 주제로 엮는 시도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에 대한 '진실성'이라고 본다. <석수시장 프로젝트>의 작가들이 3개월간 생활하고, 움직이고, 부딪히며 느끼고 만들었던 작업들이 이전의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지역과의 소통에 한발 더 다가간 형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곁에 있던 관찰자로서 작가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소통에 대한 진실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

글쓴이 권자연 미국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수학, 이화여대에서 서양화와 학사, 석사를 마쳤다. 개인전 3회(브레인 팩토리, 루프, 한전 프라자)와 그룹전들을 통한 작품 활동과 함께, <상상도서관>(2002, 채진숙과 공동기획), <오픈 스튜디오 프로젝트-웰컴투마이 스튜디오>(2004, 조은지, 김장언, 조경란, 권영지와 공동기획), <퍼블릭 텍스트>(2007, 강애란과 공동기획) 등을 기획했다.